

2019년 9월 26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탄핵 이슈 완화 속 상승폭 확대 트럼프, “생각 보다 빠른 시일안에 중국과 합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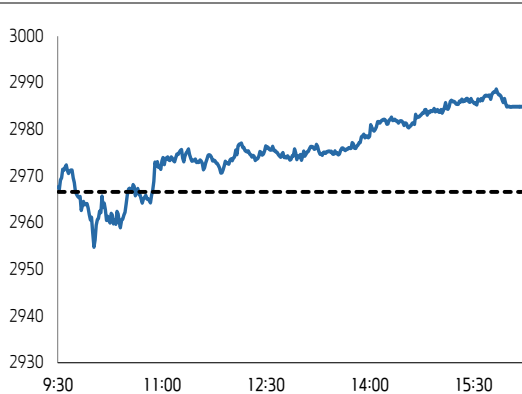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탄핵 이슈에서 무역협상으로

미 증시는 트럼프 탄핵 정국속 보험 출발. 특히 낙취록 공개 직전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음. 그러나 낙취록 안에 결정적인 내용이 없다고 알려지자 반등에 성공. 특히 양호한 주택지표 결과와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협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상승폭 확대. 반도체, 산업재, 금융주 등이 상승을 주도(다우 +0.61%, 나스닥 +1.05%, S&P500 +0.62%, 러셀 2000 +1.11%)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낙취록이 오전 10 시에 공개됨. 시장에서는 탄핵 이슈로 인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되며 낙취록 공개 직전까지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을 확대. 특히 탄핵 이슈가 높아지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정부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부담. 그러나 낙취록이 공개된 이후 낙폭이 축소되었음. 특히 트럼프가 법무부장관과 개인 변호사가 연락을 할 것이며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 압박이 일부 드러났지만, 조사요청과 군사원조가 연계된 명시적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압박을 부인하는 발표를 했으며, 미국 법무부 또한 관련 통화 내용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긍정적인 영향. 다만,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218 석을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235 석) 의원들 중 216 이 찬성하고 있어 하원 통과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부담.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협상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빠른 시일 안에 타결 될 수 있다” 라고 발표. 이는 시장의 시선을 탄핵에서 무역협상으로 돌렸고, 탄핵이슈가 장기화 될 경우 중국 정부가 협상을 지연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 시킴. 이 결과 주식시장은 상승폭을 확대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미 국채금리 또한 상승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73.39	-1.32	홍콩恒生	25,945.35	-1.28
KOSDAQ	626.76	-2.35	영국	7,289.99	-0.02
DOW	26,970.71	+0.61	독일	12,234.18	-0.59
NASDAQ	8,077.38	+1.05	프랑스	5,583.80	-0.79
S&P 500	2,984.87	+0.62	스페인	9,085.30	-0.36
상하이종합	2,955.43	-1.00	그리스	862.09	-0.68
일본	22,020.15	-0.36	이탈리아	21,788.22	-0.5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8%

마이크론(+1.98%), 인텔(+2.41%), 텍사스인스트루먼트(+1.53%)를 비롯해 퀄컴(+2.70%)등 반도체 관련주는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며 상승했다. NVIDIA (+3.30%)는 데이터센터 산업 개선에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상향하자 강세를 보였다. 브로드컴(-2.32%)은 8%의 배당금을 지불하는 전환 우선주 발행 발표 이후 하락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8% 상승했다. 애플(+1.54%)은 무역협상 기대속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메이시스(+1.83%), 콜스(+1.22%) 등 백화점 업체와 겅(+0.29%), 노드스트롬(+0.59%) 등 소비 업종도 미-중 무역협상 기대속에 강세를 보였다.

JP모건(+0.57%), BOA(+1.07%), 씨티그룹(+2.18%)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나이키(+4.16%)는 양호한 실적 발표 결과로 상승했다. 한편, 건설업체인 KB홈(+2.99%), 레나르(+0.65%), 톨브라더스(+1.66%) 등은 투자외건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했다. 알파벳(+2.27%)은 저작권을 존중해 검색에서 일부 표시 되는 부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향후 요청에 의해 게시되는데 이는 광고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된다. 아마존(+1.53%)은 원격 의료 시범 프로그램을 공개한 이후 상승했다. 반면 원격 의료 제공업체인 텔라독(-2.82%)은 이 여파로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13%	대형 가치주 ETF(IVE)	+0.59%
에너지섹터 ETF(OIH)	0.00%	중형 가치주 ETF(IWS)	+0.63%
소매업체 ETF(XRT)	+0.93%	소형 가치주 ETF(IWN)	+1.34%
금융섹터 ETF(XLF)	+0.83%	대형 성장주 ETF(VUG)	+0.82%
기술섹터 ETF(XLK)	+1.19%	중형 성장주 ETF(IWP)	+0.5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2%	소형 성장주 ETF(IWO)	+0.79%
인터넷업체 ETF(FDN)	+1.22%	배당주 ETF(DVY)	+0.53%
리츠업체 ETF(XLRE)	-0.10%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5%
주택건설업체 ETF(XHB)	+1.0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19%
바이오섹터 ETF(IBB)	-0.28%	미국 국채 ETF(IEF)	-0.66%
헬스케어 ETF(XLV)	-0.49%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96%	물가연동채 ETF(TIP)	-0.52%
반도체 ETF(SMH)	+1.71%	Long/short ETF(BTAL)	-0.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6.40	+0.23%	-1.60%	+8.89%
소재	363.73	+0.56%	-0.67%	+5.47%
산업재	655.69	+0.71%	-1.25%	+6.45%
경기소비재	948.15	+0.97%	-1.39%	+2.84%
필수소비재	623.79	+0.19%	+0.56%	+1.18%
헬스케어	1,045.04	-0.48%	-0.93%	+1.49%
금융	466.75	+0.73%	-1.09%	+7.68%
IT	1,416.42	+1.24%	-0.48%	+3.53%
커뮤니케이션	169.58	+1.12%	-1.03%	+3.60%
유틸리티	327.84	-0.03%	+1.90%	+4.20%
부동산	242.94	-0.08%	-0.00%	+1.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6%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5%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34 계약 순매수 하자 0.45pt 상승한 275.0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8.8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가 스몰딜에서 빅딜로 변심하며 우려가 높아졌으나, 오늘 언급된 '조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이슈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비록 낙취록에서는 명시적으로 수사압박은 없었지만, 외압으로 해석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탄핵 이슈가 장기화 될 경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미국의 인프라 투자, 약가 인하 등 주요 경제 정책의 처리가 지연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트럼프의 무역협상 관련 '조기 합의' 가능성 언급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물론 반도체 및 소비재 등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탄핵이슈에서 무역협상으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QE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 하는 등 연준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달러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어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개선 지속

8 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66.6 만건)이나 예상(66.2 만건)을 상회한 71 만 3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모기지 금리 하락과 고용시장 안정에 따른 것으로 최근 지속된 주택지표 개선이 이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킨 결과였다.

9 월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수는 전월(76.8) 보다 상승한 80.1 로 발표되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100 이하면 안전자산이 많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된 수치를 감안하면 기관들이 안전자산을 축소하고 위험자산으로 돌리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자산이 포트폴리오에 많은 모습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호, 악재가 상존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달러 강세 및 EIA 의 원유 재고 증가 여파로 하락했다. 상승 요인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돼 강경한 중동 정책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 미국이 이란의 원유를 수입한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발표한 점이다. 하락 요인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 군사적인 행동 보다는 제재 강화에 치중하겠다고 언급했으며, EIA 의 원유재고가 예상을 크게 증가한 점, 사우디의 8월 원유 생산량이 하루 1,130만 배럴을 기록한 점이다. 시장이 하락 요인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은 최근 가격 상승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달러화는 주택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녹취록에서 수사압박과 군사원조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강세 요인이었다.

국채금리는 주택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다. 물론 블라드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를 언급하고, 브레이너드 연준이사가 QE 확대를 주장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주장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한편, 5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36배) 보다 낮은 2.32배에 그쳤으며 간접 응찰은 12개월 평균(58.0%) 보다 높은 58.8%를 기록했다.

금은 지표 개선 및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57%, 철근은 0.09%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49	-1.40	-2.67	Dollar Index	99.028	+0.70	+0.47
브렌트유	62.39	-1.13	-1.90	EUR/USD	1.0943	-0.70	-0.79
금	1,512.30	-1.81	-0.23	USD/JPY	107.77	+0.65	-0.63
은	18,073	-2.98	+0.86	GBP/USD	1.2353	-1.07	-0.95
알루미늄	1,752.00	-0.60	-1.88	USD/CHF	0.9918	+0.64	-0.56
전기동	5,787.00	+0.12	-0.46	AUD/USD	0.6751	-0.74	-1.13
아연	2,290.00	+0.35	-1.29	USD/CAD	1.3268	+0.19	-0.16
옥수수	374.25	-0.13	+0.81	USD/BRL	4.148	-0.41	+0.91
밀	477.25	-0.93	-2.50	USD/CNH	7.1272	+0.30	+0.62
대두	889.25	-0.56	+0.06	USD/KRW	1198.80	+0.26	+0.63
커피	100.95	+1.82	+0.60	USD/KRW NDF1M	1198.85	+0.37	+0.6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737	+9.16	-5.89	스페인	0.130	+1.50	-9.50
한국	1.425	-2.20	-3.20	포르투갈	0.153	+1.40	-8.40
일본	-0.255	-2.10	-7.30	그리스	1.322	+0.50	-5.70
독일	-0.575	+2.50	-6.50	이탈리아	0.840	+0.90	-3.40